

#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연구

## -사회적 정체성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이 명 진\*\*

### I . 머리말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정치과정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을 쉽게 접하고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곤 한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투표 행위를 하기도 한다(김학수, 1997; 이준웅, 1998).<sup>1)</sup> 구미의 많은 학자들이 정치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 오고 있다(Katz and Feldman, 1962; Drew and Weaver, 1991; Chaffee et al., 1994).

한국사회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실제 투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해 오고 있다(조기숙, 1995; 김학수, 1997; 김광수, 1998; 이준웅, 1998).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정치에서 갖는 의미와 대중적인 관심이 크다. 이에 여러 언론에서는 선거가 가까이 오면 이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중앙일보, 1996; 월간조선, 2002; 조선일보, 2002; 중앙일보, 2002).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조사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응답자들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몇 개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거나, 연상되는 특정한 형용사나 명사를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도 단편적으로만 보고 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지식의 축적이나 방법론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조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미지

\*자료분석과 도표작성을 도와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구에게 감사한다.

\*\*국민대 사회학과

1)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는 때로는 대중조작의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다.

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연구자들은 일시적인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이미지의 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는 비교나 다양한 응용가능성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치지도자들과는 한정된 인물들 사이에서는 이미지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차원에서 이미지를 논의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셋째,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조사가 다루고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각 형용사 범주별로 빈도나 백분율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김학수, 1997).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인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인 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인 틀을 이용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거나 대상을 평가하는 일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Kemper and Collins, 1990).

이를 위해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평가되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 개념은 사람들이 사물이나 인물 같은 대상을 평가(이미지를 형성)할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특정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Osgood et al., 1975).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물이나 인물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교 대상이 되었던 사물과 인물들을 조사하고자 한다(Heise, 1965).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 혹은 사물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 해나간다는 본다(Taifel, 1979; Britt and Heis, 2000).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1970년대말 타이펠(Tajfel)과 터너(Turner)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이론은 '분류화'(categorization), '정형화'(identification)와 '비교'(comparison)라는 3가지 핵심적인 개념

을 바탕으로 한다. '분류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물끼리 분류하듯이,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화'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단을 자기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비교'는 사회적 비교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해 나간다는 것이다(Turner, et al., 1979; Taifel, 1979; Kemper and Collins, 1990).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시 된다. 많은 고전과 근대 연구들은 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정체성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들을 보다 타인들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고(Allen and Wilder, 1975, 1979; Mackie, 1986), 보다 협동적으로 작업하게 되며(Abrams et al., 1990; Back, 1951),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게 되고(Deutsch and Gerard, 1955; Mackie et al., 1992; Wilder 1990),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Brock, 1965; Mackie et al., 1990) 행동양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동조를 이끌어 낸다는(French and Raven, 1959; Wilder and Shapiro, 1984) 점들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 2. 이미지 측정

사회적 정체성과 이미지에 관한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주관적 감정들(affective meanings)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 자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회적 행동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사회적 정체성과 이미지는 사회화의 영향을 통해 내재화되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Heise, 1970; Heise, 1985; Dunphy and MacKinnon. 2002).

이에 대해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주관적인 측면도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문화와 사회를 넘어서 상징들의 감정적 의미를 구별하는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관적 감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다(Osgood et al., 1975; Heise, 1985; Dunphy and MacKinnon. 2002).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사물이나 인물이 갖는 특정한 이미지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비교 연구하려는 활발한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인 오스구드 등(Osgood et al., 1975)은 다변량분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이 갖는 이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인물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몇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에 20여개 이상의 문화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이즈(Heise, 1979)는 수학적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인간두뇌학적인 체계를 모형화하였다. 이 모형은 인간의 마음이 역할, 감정, 속성, 명명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개념과 이에 상응한 이미지를 구성할 때 어떠한 체계를 이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인류학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

다. 롬리 등(Rpmney et al., 1986)은 한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는 몇 개의 중요한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Ⅲ. 자료와 분석

#### 1. 자료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사회정체성 이론이라는 연구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대상자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사회여론조사에서처럼 응답대상자들을 표집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개인들의 반응을 보다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표본들을 통해 성별, 세대간, 교육수준별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의 확장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응답자들 모두가 다 사회정체성과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은 자료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특정한 집단만을 표본을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학생과 같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고학력층은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주관적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정체성과 이미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각종 형용사의 어감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sgood et al., 1975). 아울러 연구자들이 조사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연구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전체사회에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세대와 같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배경변수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거나 분석결과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단점과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여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이 응답대상자로 설정되었다. 본조사에서 사용될 각종 형용사(수식어)를 결정하는 사전조사단계에서는 약 100여명이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조사에서는 약 500여명이 조사되었다. 각 조사단계에서 성비는 최대한 남녀비율이 유사하도록 조절하였다.

#### 2. 요인추출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한 각종 대상에 대한 이미지조사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사전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지도자를 포함한 각종 대상을 특징짓는 각종 수식어를 종합화한다. 일단 남녀 각각 50여명으로 응답자군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응답자들은 각종 사회정체성조사에서 사용된 사물과 인물 100개에 대한 이미지를 수식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수식어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수식어 52개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수식어는 사전에 근거해서 반대말과 짝지어졌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일종의 척도를 구성할 수 있고, 등간척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다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두 104개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가족관계, 사물, 직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상에 박정희, 김대중,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포함되었다.

남녀 비율이 유사하게 할당된 약500여명 대학생들은 각각의 대상에 대해 52개의 수식어 척도별로 평가를 하게 하였다. 다만 각각의 응답자가 모든 대상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다. 따라서 각 응답자는 약3-4개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부록 1>은 평가대상과 각 형용사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구해진 자료는 모두 52개의 형용사가 변수로 부호화되어 있는 자료이다. <표 1>은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리맥스 회전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7개의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네 개의 요인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요인점수는 0.5보다 큰 값을 가질 때만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발견되는 요인은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차원이다. 따라서 그 의미도 조금은 추상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의미를 보고 각 요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각 요인과 관계가 깊은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요인의 의미를 추정한다. 먼저 제1요인을 보게 되면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많다. 특히 자기가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편하다, 따뜻하다, 다정하다, 부드럽다 같은 형용사들이 제1요인과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형용사들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제1요인은 응답자와의 친밀감(sociability)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1요인은 전체 자료의 변량 중 약 23.0%를 설명하고 있다.

제2요인은 정직, 희생적, 훌륭함, 믿음, 용감한, 존경하다 같은 형용사와 높은 관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주로 공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제2요인은 대상의 훌륭함(greatness)을 평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요인은 약 16.1%를 설명하고 있다.

제3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 이 요인 역시 공적인 측면 혹은 사회생활과 관계가 깊다. 관련이 큰 형용사로는 권력있다, 권위적이다, 높다, 위엄있다 등이다. 따라서 제3요인은 대상의 권력(power)을 평가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요인은 약9.1%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요인은 설명력에 있어서 제3요인과 유사하다. 약 9.0% 정도를 설명한다. 활동적, 빠른, 건강한 등의 형용사들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요인은 활동성(activity)라고 볼 수 있다.

〈표 1〉 사회정체성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3	요인4
편하다/어렵다	.847			
따뜻함/차가움	.829			
다정함/냉담한	.812			
부드러운/딱딱한	.806			
너그럽다/엄하다	.789			
친함/소원하다	.741			
까깝다/멀다	.740			
자상한/무심한	.732			
좋다/싫다	.705			
무섭다/안무섭다	.689			
친절/불친절	.687			
사랑/미움	.667			
반갑다/귀찮다	.650			
소중한/하찮은	.599			
민주적/권위적	.591			
아름다운/추함	.537			
씩씩한/무뚝뚝한	.508			
정상적/이상한	.502			
용통/고집				
정직/부정직		.693		
희생적/이기적		.678		
훌륭한/보잘것없다		.668		
믿음/믿음없다	.509	.641		
용감한/비겁한		.635		
철들다/철없다		.625		
튼튼함/못미더운		.616		
칭찬/부패한		.609		
차분한/들떠있는		.602		
현명한/어리석은		.601		
자랑/부끄러움		.589		
강하다/약하다		.526		
소신/소신없다		.523		
존경/멸시		.517		
유능한/무능한				
똑똑한/멍청한				
멋있다/촌스럽다				
권력/권력없다			.837	
권위적/비권위적			.811	
높다/낮다			.765	
위엄/경박			.724	
교양/상스럽다				
깔끔한/구질구질				.747
활동적/수동적				.738
빠르다/느리다				.643
진강/허약				.639
호탕/달달				.520
예리함/둔함				
공정한/불공정한				
진보적/보수적				
귀엽다/정그럽다	.508			
젊다/늙다				
순종적/반항적				
집계치	23.0%	16.1	9.1	9.0

주1: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 방법 배리맥스를 이용하였다.

주2: 요인점수는 .5 이상 값을 가지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 3.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평가

이렇게 추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대상별로 회귀분석법으로 산출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2>는 친밀성을 의미하는 제1요인을 기준으로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대상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요인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친구와 아내가 친밀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사채업자, 간첩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친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으로는 게으름뱅이, 간호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몽준으로 아저씨, 학생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몽준 다음으로는 노무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은 친밀성에서 주정뱅이, 시누이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영웅과 위선자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이회창과 박정희는 상대적으로 친밀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회창은 비행기, 점쟁이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박정희는 깡패, 사업자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요인점수의 분산은 얼마나 응답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요인점수의 분산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서 응답자의 의견의 일치정도가 유사하다. 특히 의견의 일치정도가 큰 대상은 대통령, 정치가, 컴퓨터, 사채업자 등이다. 정치지도자로는 이회창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어도 친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회창이 다른 정치지도자들에 비해 이미지에 대한 일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사회정체별 제1요인점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친구	1.413	0.328
아내	1.339	0.275
게으름뱅이	0.368	0.489
김대중	0.273	0.450
간호사	0.262	0.851
아들	0.184	0.412
아저씨	0.155	0.703
정몽준	0.148	0.567
학생	0.137	0.223
주정뱅이	-0.105	0.140
노무현	-0.111	0.531
시누이	-0.125	0.424
영웅	-0.413	0.831
대통령	-0.450	0.279
위선자	-0.471	0.347
정치가	-0.741	0.157
컴퓨터	-0.770	0.226
비행기	-0.818	0.327
이회창	-0.820	0.208
점쟁이	-0.859	0.489
국회의원	-0.876	0.315
장관	-0.895	0.430
깡패	-1.137	0.172
박정희	-1.144	0.459
사채업자	-1.282	0.241
간첩	-1.368	0.887

<표 3>은 사회정체성별 제2요인에 대한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보여주고 있다. 제2요인은 훌륭함을 의미하는 요인이다. 이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대상은 스님, 비행기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는 대상은 국회의원과 바람둥이이다. 정치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박정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박정희와 유사한 대상으로는 애인과 장모이다. 그 다음으로는 김대중으로 이혼녀와 친구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몽준은 공무원, 주정뱅이와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정뱅이, 마약중독자와 유사한 평가를 받는 노무현이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점쟁이와 유사한 평가를 받은 이회창은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훌륭함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회창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요인점수의 분산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의견의 일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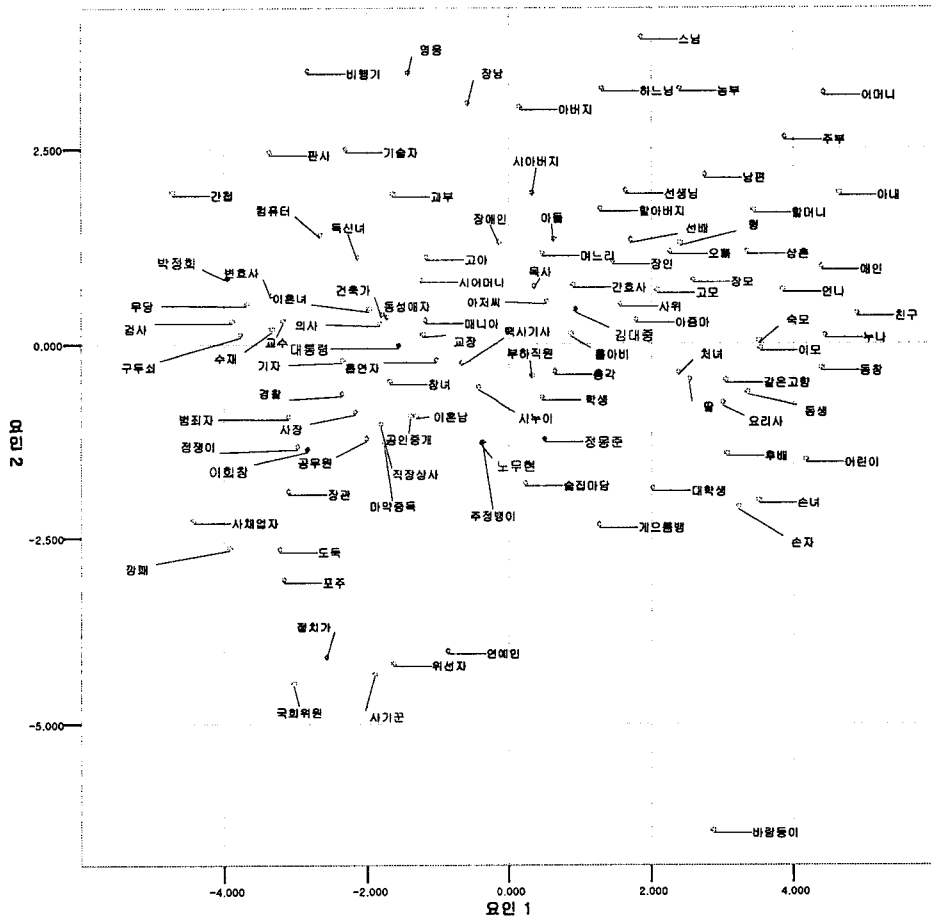
<표 3> 주요 사회정체성별 제2요인점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스님	1.350	0.849
비행기	1.196	0.914
애인	0.334	0.849
박정희	0.281	0.866
장모	0.276	0.486
이혼녀	0.144	0.327
김대중	0.141	0.343
친구	0.124	0.474
숙모	0.001	0.596
대통령	-0.019	1.089
이모	-0.030	0.373
공무원	-0.435	0.671
정몽준	-0.441	0.453
주정뱅이	-0.450	0.555
마약중독자	-0.455	0.176
노무현	-0.455	0.826
점쟁이	-0.471	0.435
이회창	-0.486	1.659
후배	-0.504	0.456
어린이	-0.532	0.600
장관	-0.674	0.498
정치가	-1.433	0.577
위선자	-1.458	0.448
사기꾼	-1.513	0.485
국회의원	-1.554	0.954
바람둥이	-2.222	1.027



<그림 1>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제1요인과 훌륭함을 나타내는 제2요인에 대한 요인점수 평균값을 좌표로 삼아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료를 설명하는데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 차원의 고유값의 제곱근을 적용하였다.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는 친밀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들이 나타난다. 주로 어머니, 주부, 아내 등 여성과 관련이 많은 대상들이다.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인, 국회의원 등은 이에 비해 좌측하단에 많이 위치해 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도 않고, 공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정희만이 공적인 측면(훌륭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1> 사회정체별 요인점수 (요인 1 vs. 요인 2)



<표 4>는 권력을 의미하는 제3요인에 대한 대상별 요인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인에서는 교수, 교장 대한 요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동성애자,

주정뱅이, 창녀에 대한 요인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회창은 국회의원, 대통령, 변호사, 사장 등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위들과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다음으로는 박정희, 정몽준 등으로 나타난다. 김대중은 목사, 건축가와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은 공무원, 요리사 등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제3요인에서는 이러한 노무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일치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노무현에 대한 요인점수의 분산은 장관, 국회의원, 정치인 등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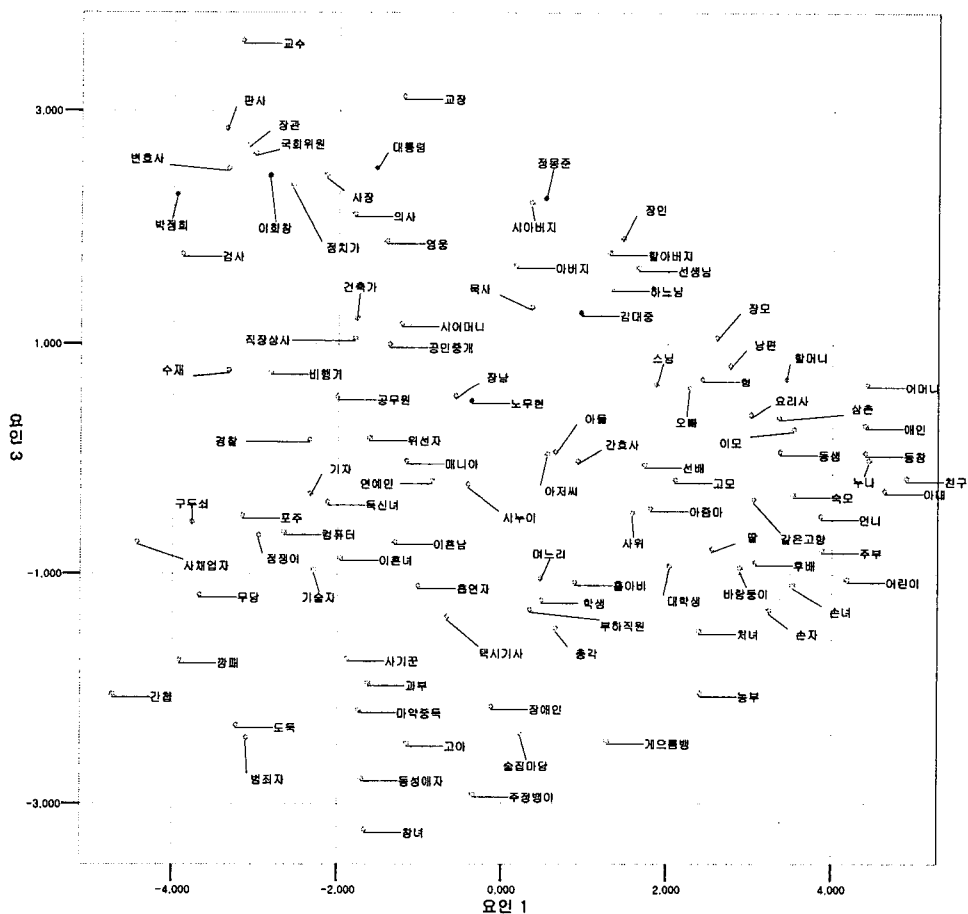
〈표 4〉 주요 사회정체별 제3요인점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교수	1.650	0.498
교장	1.424	0.346
장관	1.230	1.808
국회위원	1.199	1.283
대통령	1.141	0.812
변호사	1.139	0.572
사장	1.113	0.809
이회창	1.108	0.641
정치가	1.075	1.591
박정희	1.035	0.444
정몽준	1.020	0.574
시아버지	1.002	0.551
목사	0.591	0.827
김대중	0.570	0.487
건축가	0.550	0.369
공무원	0.238	0.733
노무현	0.223	1.041
요리사	0.166	0.558
고아	-1.149	0.462
동성애자	-1.286	0.492
주정뱅이	-1.354	0.610
창녀	-1.495	0.426

제3요인도 다른 도표와 함께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는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는 제1요인과 제3요인을 도표에 제시하고 있다. 도표의 좌측 상단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지위들

이 위치해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지만,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상들이다. 교수, 판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이회창, 정몽준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에 상대적으로 가깝다. 노무현, 김대중은 이들 집단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반면에 우측하단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들이 위치해 있다. 손자, 손녀, 처녀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그림 2> 사회정체별 요인점수 (요인 1 vs. 요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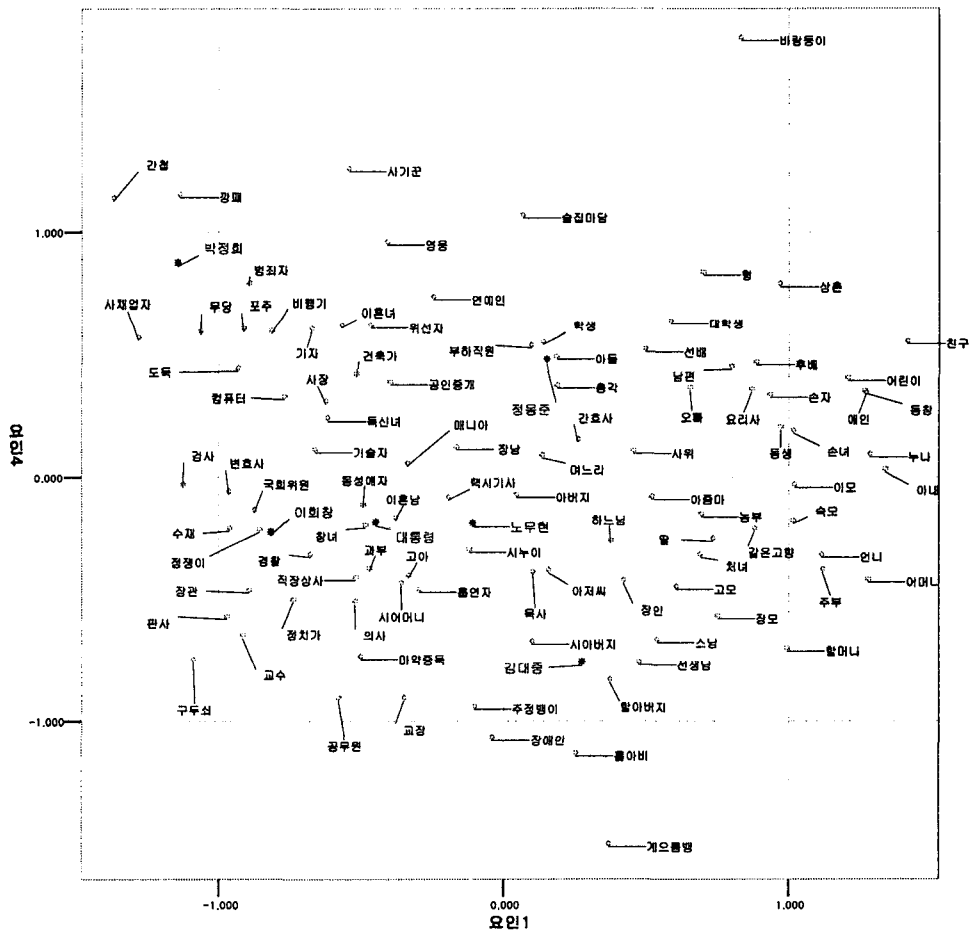
<표 5>는 활동성을 의미하는 제4요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둥이와 사기꾼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홀아비, 게으름뱅이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는 박정희가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영웅과

형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몽준으로 아들과 후배와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무현은 대통령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이회창은 점쟁이, 딸과 유사한 요인점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과 유사한 평가를 받는 대상은 선생님, 할아버지 등이다.

〈표 5〉 주요 사회정체별 제4요인점수 평균과 분산

	평균	분산
바람둥이	1.787	1.023
사기꾼	1.249	1.901
영웅	0.949	0.844
박정희	0.859	0.602
형	0.828	0.594
아들	0.482	0.719
정몽준	0.467	0.463
후배	0.461	0.495
국회위원	-0.148	0.943
속모	-0.188	0.689
대통령	-0.201	0.473
노무현	-0.203	1.048
창녀	-0.209	0.674
점쟁이	-0.225	0.998
이회창	-0.241	0.691
딸	-0.263	0.586
장관	-0.475	0.798
정치가	-0.515	0.651
선생님	-0.771	0.494
김대중	-0.775	0.237
할아버지	-0.843	0.366
공무원	-0.918	0.399
주정뱅이	-0.953	0.669
장애인	-1.078	0.437
홀아비	-1.143	0.337
게으름뱅이	-1.516	0.373

마지막 그림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제1요인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제4요인으로 구성된 도표이다. 우측상단에는 친밀하고 동시에 활동적인 대상이 위치해 있다. 대표적인 대상이 바람둥이이다. 우측하단에는 친밀하지만 활동성이 떨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김대중 등이 위치해 있다.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박정희는 활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친밀감은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정몽준은 활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친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밀감도 낮고 활동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 4. 정치지도자들간의 거리

앞서 살펴본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중요한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어떤 대상과 유사

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것은 논의는 이러한 이미지 차이를 간단히 요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정보는 각 차원별로 살펴본 개별적인 정보였다. 동시에 상대적인 차이와 유사한 대상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정보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평가를 다 요약하는 것보다 정치지도자들만을 한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00여개가 넘는 대상을 요약하여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힘들다. 아울러 정치지도자들의 거리를 요약한 단일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표 6>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차이를 요약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일종의 거리 지표 혹은 상이성(dissimilarity)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좌표로 간주하여, 정치지도자들의 거리를 유클리디안 거리산출법으로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모두 4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거리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표를 살펴보면, 우선 이회창은 다른 정치지도자들에 비해 대통령과 가장 이미지가 가깝다. 다른 정치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이회창은 박정희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장 가깝고 김대중과 가장 거리가 멀다. 박정희는 이회창과 가장 가깝다. 반면에 김대중과는 거리가 가장 멀다. 노무현은 김대중과 가장 거리가 가깝고 박정희와 가장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김대중과 정몽준과 서로 가장 거리가 가깝고 박정희와 가장 거리가 멀다.

<표 6> 정치지도자들 이미지간의 거리

	이회창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정몽준
이회창	0.000	1.764	2.590	3.185	1.317	2.376
박정희	1.764	0.000	3.429	3.619	1.818	3.486
노무현	2.590	3.429	0.000	1.714	2.337	1.844
김대중	3.185	3.619	1.714	0.000	2.184	1.569
대통령	1.317	1.818	2.337	2.184	0.000	1.718
정몽준	2.376	3.486	1.844	1.569	1.718	0.000

####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

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사회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이용하여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다 지속적이고 비교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보다 복잡적이고 잠재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미지의 변이가 상대적으로 작을 정치지도자들에 한정해서 제한적인 이미지를 조사할 때 얻을 수 없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방법론상으로도 수식어나 형용사 위주로 구성된 자료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관련분야에서 유사한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할 것이다.

자료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훌륭함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나타낸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일종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인 친밀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몽준은 상대적으로 박정희와 이회창에 비해 높다. 두 번째 차원인 훌륭함에서는 박정희, 김대중은 정몽준, 노무현, 이회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인 권력에서는 박정희, 이회창, 정몽준이 김대중, 노무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차원인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정희, 정몽준이 노무현, 이회창, 김대중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한 일종의 이미지간 거리에서는 박정희, 이회창이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노무현, 김대중, 정몽준이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

## 참고문헌

- 김광수, 1998. "정치 광고 후보자의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 : 광고태도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Vol.9, No.2: 69-88.
- 김학수. 1997. "정치인 이미지의 새 조사방법 : 제15대 대선후보 중심의 시험연구." 97-98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연구논문.
- 월간조선. 2002.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각 후보 모습." 2월호.
- 이준웅.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3-2호 : 243-284.
- 조기숙. 1995, 「한국 유권자의 정당분위 투표」, 《의정연구》 제1권 제1호 : 156-183.
- 조선일보. 2002. "첫 대선 예비주자 11명 이미지 조사." 3월 4일.
- 중앙일보. 1996. "국민의 눈에 비친 대선주자들." 1996년 9월 23일.
- \_\_\_\_\_. 2002. "대선주자 '빅'리더쉽 집중탐구." 10월 27일.
- Chaffee, Steven H., Xinshu Zhao, and Glenn Leshner. 1994, "Political Knowledge and the Campaign Media of 1992," *Communication Research*, vol.21, no.3: 305-324
- Drew, Dan and David Weaver. 1991, "Voter Learning in the 1988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Debates and the Media Matter?", *Journalism Quarterly*, vol.68, no.1/2 : 27-3.
- Dunphy, Tara, and Neil MacKinnon. 2002. "A Proposal for Integrating Folklore and Affect Control Theory." *Electric Journal of Sociology* 6: 3.
- Heise, D. R. 1965. "Semantic Differential Profiles for 1,000 Most Frequent English Words." *Psychological Monographs* 79: No. 8.
- \_\_\_\_\_. 1985. "Affect control theory: Respecification, estimation, and tests of the formal model."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1 : 191-222.
- Britt, Lory, and D. Heise. 2000. "From Shame to Pride in Identity Politics." Chapter 12 in *Self, Identity, and Social Movements 2000*, edited by Sheldon Stryker, Timothy Owens, and Robert Whit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atz, Elihu and Jacob J. Feldman. 1962. "The Debates in the Light of Research: A Survey of Surveys." Pp. 173-223. In Sidney Kraus (ed.) *The Great Debates : Kennedy vs. Nixon*, 196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emper, T. David, and Randall Collins. 1990. "Dimensions of micro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32-68.
- Osgood, Charles E., G. J. Suci and P. H. Tannenbaum.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sgood, Charles E. 1962. "Studies on the generality of affective meaning systems."



*American Psychologist* 17: 10-28.

Osgood, Charles E., W. H. May, and M.S. Miron.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ajfel, Henri.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Turner, J C, Brown, R J, Tajfel, Henri.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79, 9, 2, Apr-June, 187-204.

〈부록 1〉 조사 대상

1-A건축가	1-B구두쇠	1-C같은고향사람	1-D총각
2-A비행기조종사	2-B영웅	2-C어머니	2-D이혼녀
3-A이회창	3-B아내	3-C계으름뱅이	3-D무당
4-A의사	4-B범죄자	4-C선생님	4-D오빠
5-A위선자	5-B손녀	5-C이모	5-D경찰
6-A삼촌	6-B기술자	6-C주정뱅이	6-D바람둥이
7-A택시기사	7-B마약중독자	7-C동생	7-D며느리
8-A아들	8-B장인	8-C사채업자	8-D기자
9-A흡연자	9-B아저씨	9-C점쟁	9-D이장관
10-A시아버지	10-B형	10-C처녀	10-D교수
11-A고아	11-B깡패	11-C매니아	11-D변호사
12-A농부	12-B연예인	12-C고모	12-D장모
13-A아버지	13-B이혼남	13-C사장	13-D간첩
14-A할아버지	14-B부하직원	14-C수재	14-D요리사
15-A딸	15-B박정희	15-C손자	15-D애인
16-A직장상사	16-B대학생	16-C포주	16-D장애인
17-A 술집마담	17-B주부	17-C누나	17-D국회위원
18-A언니	18-B과부	18-C공무원	18-D도둑
19-A목사	19-B선배	19-C컴퓨터프로그래머	19-D판사
20-A친구	20-B정치가	20-C시누이	20-D납편
21-A할머니	21-B동성애자	21-C스님	21-D후배
22-A하느님	22-B검사	22-C홀아비	22-D노무현
23-A창녀	23-B사위	23-C교장	23-D동창
24-A시아머니	24-B사기꾼	24-C아줌마	24-D 학생
25-A김대중	25-B 대통령	25-C숙모	25-D 장남

〈부록 2〉 형용사 목록

1. 따뜻하다	-----	차갑다
2. 좋다	-----	싫다
3. 편하다	-----	어렵다
4. 무섭지 않다	-----	무섭다
5. 민주적이다	-----	권위적이다
6. 공정하다	-----	불공정하다
7. 너그럽다	-----	엄하다
8. 높다	-----	낮다
9. 위엄있다	-----	경박하다
10. 소중하다	-----	하찮다
11. 존경스럽다	-----	멸시받는다
12. 친하다	-----	소원하다
13. 교양있다	-----	상스럽다
14. 청렴하다	-----	부패하다
15. 예리하다	-----	둔하다
16. 활동적이다	-----	수동적이다
17. 깔끔하다	-----	구질구질하다
18. 든든하다	-----	못미덥다
19. 귀엽다	-----	징그럽다
20. 순종적이다	-----	반항적이다
21. 소신있다	-----	소신없다
22. 현명하다	-----	어리석다
23. 융통성있다	-----	고집스럽다
24. 철들다	-----	철없다
25. 싹싹하다	-----	무뚝뚝하다
26. 권력있다	-----	권력이 없다
27.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28. 가깝다	-----	멀다
29. 멋있다	-----	촌스럽다
30. 정직하다	-----	부정직하다
31. 자상하다	-----	무심하다
32. 부드럽다	-----	딱딱하다
33. 사랑스럽다	-----	밉다
34. 재빠르다	-----	느리다
35. 용감하다	-----	비겁하다
36. 희생적이다	-----	이기적이다
37. 훌륭하다	-----	보잘것없다
38. 젊다	-----	늙다
39. 권위가 있다	-----	권위가 없다
40. 다정하다	-----	냉담하다
41. 아름답다	-----	추하다
42.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43. 반갑다	-----	귀찮다
44. 유능하다	-----	무능하다
45. 차분하다	-----	들떠있다
46. 똑똑하다	-----	멍청하다
47.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48. 건강하다	-----	허약하다
49. 호탕하다	-----	답답하다
50. 자랑스럽다	-----	부끄럽다
51. 정상적이다	-----	이상하다
52. 강하다	-----	약하다